

서유구 '완영일록' 1차 번역본 출간

전라도관찰사 행정일기(1833.4~1834.12) 1~4권... 부임·인사고과·구역돌림병 처방 등 기록

전북도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이자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한 풍석(楓石) 서유구가 쓴 '완영일록(完營日錄)' 1차 번역본을 출간했다.

완영일록은 서유구가 전라도관찰사로 재직하던 1833년(순조 33) 4월부터 1834년(순조 34) 12월까지, 전라도 감영, 즉 완영(完營)이 있는 전주에서 지방 통치 및 재정 운영에 관여해 수행한 공무를 일기 형식으로 서술한 기록이다.

8권 1책으로 구성된 완영일록은 13종, 1070건의 공문서를 날짜별로 기록한 행정일기로 원본은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보관되어 있으며, 2012년에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에서 3권으로 묶어 영인본으로 펴냈다.

전북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차년에 걸쳐 번역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완영일록 1~4권 번역이 완료됐다.

완영일록을 분석해 본 결과, 전라감영에서 발송되는 공문들은 송달되는 기관이나 문서 형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상부기관에 업무를 보고하는 '장계(狀啓)', '보첩(報牒)' 등 상행(上行)문서가 169건 16%, 도내 행정 및 군사기관과 왕래하는 '관문(關文)', '이문(移文)' 등 동등·하행(下行)문서가 309건 29%, 공문에 감사가 담하는 '제(題)', 하부기관에 대한 명령서인 '감결(甘結)', '전령(傳令)' 등 하행(下行)문서가 592건 55%로 확인될 수 있었다.

완영일록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사법 판결문인 제(題)인데, 제(題)는 보장(報狀), 검안(檢案), 사안(査案) 등의 형태로 전라도 각 고을에서 올린 민원인의 소장, 청원서, 진정서 등으로 494건으로 전체



송 지사의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 송 지사는 15일 제341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성빈 도의원(전북 농산물 브랜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관련), 최영규 도의원(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능력 상실 관련), 정호영 도의원(저출산, 보육여건 관련) 김영배 도의원(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박재만 도의원(군산공항 관련) 등 도정관련 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가졌다.

46%를 차지했다. 완영일록에는 전라도 53개 고을과 병영 및 각 진(鎭) 등의 행정·군사·사법 등 전라도관찰사의 제반 업무에 대한 지방통치 행정 기록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특히, 1834년 1월 17일, 우역(牛疫)에 대한 약방문(藥方文) 처방이 이체로운데, 우역은 지금은 없어진 질병이지만 조선시대 구제역(口蹄疫)이라 할 수 있는 큰 돌림병이었다.

관찰사인 서유구는 우역에 남아 소변이 좋다는 약방문을 적어서 전라도 53개 군현과 법성진, 고군산진 등에

공문을 발송한 특이한 내역도 기록돼 있다.

서유구는 비록 전라도가 아닌 서울 경화사족 출신이지만 46세 때인 1799년에 순창군수를 역임하면서 농업정책을 마련했고, 이후 풀곧 전라도 지역의 농촌과 농민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졌고, 70세 나이에 전라감사에 부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서유구의 대표적인 저서인 조선 최고의 생활문화 백과사전으로 꼽히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의 토대가 되는 지역으로서 의미가 크다. 현존하는 관찰사의 기록물은 신변잡

거나 개인의 기록 등이 수록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사법, 행정, 군사 등 관찰사 제반 공문서 기록으로는 완영일록이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노학기 문화유산과장은 "실학자이자 관료로서의 서유구의 면모, 전라도의 사회상과 생활사에 대한 기록이 생생히 담긴 완영일록은 또다른 전북도의 보물"이라면서, "향후 완영일록 번역을 통해 전라감영 복원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 새뜰마을사업 공모 7건 선정

전북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총 7건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1면)

새뜰마을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

전북도는 총 12건의 사업을 신청해 7건이 최종 선정됐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전국 35건 가운데 전북도 사업이 6건이나 선정되는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7건을 살펴보면 농어촌 부문에 완주군 월당·월촌마을, 무주군 두문마을, 장수군 교촌마을, 임실군 방현마을, 순창군 월곡마을, 고창군 가평마을이며, 도시부문에 김제시 옥산동·요촌동 일원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 수리,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 철거, 마을 안길·담장 정비, 상하수도 확충, 경로당·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인재용 기자

도, 농업경영컨설팅에 11.7억 지원

전북도는 올해 농업경영컨설팅에 11억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식품부 국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2차에 걸쳐 83경영체(법인 23, 개인 60)가 신청해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평가점검단의 현장 점검 등 사전혁신역량 진단을 통해 80경영체(법인 20, 개인 60)가 선정됐다.

선정된 경영체는 법인 최대 2,000~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이 지원되고, 인증된 컨설팅 업체와 계약하면 컨설팅업체가 농가를 방문해 기술지원을 통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인재용 기자

도,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특교세 10억 확보

전북도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무주군 태권도 관광조형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태권도를 신한류문화 대표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태권도원을 개원했으나, 한국의 전통미가 부족하고 무주군이 태권도의 성지임을 알릴 수 있는 상징 시설이 없어 덕유산, 스키리조트 등 기존 관광자원을 찾는 관광객들을 태권도원으로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날 태권도원을 방문한 흥윤식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소림사의 산문처럼 무주군 관문에 한옥형식의 '태권의 문'을 건립해 한국의 전통미를 강화하는 한편, '태권의 문' 인근에 태권 품새 조형물 등을 전시하는 공원을 조성해 태권도 성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연구개발특구 산업단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도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인재용 기자

무진장 3군,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공동 생산

급식 수요에 맞춘 13개 품목별 기획생산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전북도와 도 교육청은 동부권 3개군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간 생산·소비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생산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학기와 과종시기를 맞아, 시범적으로 진안·무주·장수 3개군은 13개 품목별 학교급식 수요에상량(4월~8월)을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생산이 원

활한 지역에서 해당 품목을 전담 생산하고 교류를 시작한다.

이들 지역은 학생수가 적어 개별 군 단위는 소비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농가조직화에 한계가 있었고, 학교급식에 쓰이는 친환경농산물을 대부분 외부 도시에 의존해 학교급식 식재료 예산 상당액이 지역 외로 빠져나갔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진안·무주·장

수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이 지역 농가로 돌아가는 비율을 높임으로써, 동부권 지역경제 선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기별·품목별로 공동 적정가격을 적용하고 행정·센터·학교가 참여하는 학교급식 운영협의회를 개최해 동부권 친환경 급식 식재료 수급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나아가,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이용

해 동남부권·도시권·서부권별 공동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상향식으로 권역을 연계하여 도 단위 친환경 학교급식 수급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별도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무료 클라우드 프로그램인 구글독스(Google Docs)를 활용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직접 웹과 모바일에서 수급계획을 실시간 수정하고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동부권 3개군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기획생산 품목과 권역 간 교류를 확대해 학교와 농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새만금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진행상황 점검회의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미래관에서 '새만금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업용수도 건설의 2018년 적기 준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정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배수지가 설치되는 지역(군산시 오식도동)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은 2013년에 착공해 2015년 배수관로를 우선 설치

한 후, 기존 배수지를 이용해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신설 배수지 건설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공업용수 수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목표 연도인 2018년까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지역의 인력·장비·자재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시공업체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